

## Contents



###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1. UPS, 2017년 최고 물류브랜드로 선정



### 물류정책 · 산업동향

1. CMA-CGM, 세계 최초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설립
2. Kuehne+Nagel, 해운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 출시
3. PSA, 인도 자와할라 네루 신규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 착수
4. 푸틴 대통령, 국정 연설에서 러시아 내륙물류 및 항만개발 언급

### 명사 스피치

*"So it all comes down to your understanding of your customer and the culture that you operate in. What's the most adaptive supply chain that you can construct? And you have to be nimble about it. You need to design your factories and warehouses and your supply chains in order to adapt."*

Girish Rishi CEO of JAD Software  
(2018. 2. 28. / Internet of Business)















##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 UPS, 2017년 최고 물류브랜드로 선정

#### 2017년 물류브랜드 순위

 <b>1</b> Rank 2017: 1 2016: 1 BV 2017: \$ 22,128m BV 2016: \$ 20,045m +10% Brand Rating: AAA-	 <b>6</b> Rank 2017: 6 2016: New BV 2017: \$ 4,898m BV 2016: New Brand Rating: AA-
 <b>2</b> Rank 2017: 2 2016: 2 BV 2017: \$ 17,092m BV 2016: \$ 13,079m +31% Brand Rating: AA+	 <b>7</b> Rank 2017: 7 2016: 9 BV 2017: \$ 4,023m BV 2016: \$ 3,394m +19% Brand Rating: AA
 <b>3</b> Rank 2017: 3 2016: New BV 2017: \$ 12,233m BV 2016: New Brand Rating: AA-	 <b>8</b> Rank 2017: 8 2016: 8 BV 2017: \$ 3,933m BV 2016: \$ 3,460m +14% Brand Rating: AA
 <b>4</b> Rank 2017: 4 2016: 3 BV 2017: \$ 10,251m BV 2016: \$ 9,723m +5% Brand Rating: AA	 <b>9</b> Rank 2017: 9 2016: 11 BV 2017: \$ 3,849m BV 2016: \$ 3,231m +19% Brand Rating: AA+
 <b>5</b> Rank 2017: 5 2016: 5 BV 2017: \$ 8,005m BV 2016: \$ 7,665m +4% Brand Rating: AA+	 <b>10</b> Rank 2017: 10 2016: 10 BV 2017: \$ 3,818m BV 2016: \$ 3,366m +13% Brand Rating: AA

자료 : <http://www.logisticsmgmt.com>

-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물류 회사인 United Postal Service(UPS)가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물류브랜드로 선정됨
  - 올해 UPS의 브랜드 가치는 22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등극함
- UPS를 이어 FedEx가 2위, JR(일본 철도)이 3위, DHL이 4위를 차지함
  - 미국 물류기업 4개가 상위 6위 안에 등극했으며, 상위 25위 안에는 7개 기업이 등극한 것으로 나타남
  - FedEx는 페트야(Petya) 사이버 공격으로 매출이 감소했지만, TNT Express 인수 건으로 2위에 올라설 수 있었음

참고자료 : <http://www.logisticsmgmt.com>, 2018.3.5.

신수용 전문연구원

051-797-4780, shinsy@kmi.re.kr



## 물류정책·산업동향

## CMA-CGM, 세계 최초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설립

- CMA-CGM은 최근 프랑스 마르세이유에 본사를 둔 자사 최초의 국제창업 지원 및 인력개발 센터인 'Ze Box'를 설립했음
  - 'Ze Box'는 선사들의 디지털화 개발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로서 CMA-CGM은 'Ze Box'를 통해 그간 자사가 추구해오고 있는 목표와 계획들을 더욱 신속하고 강력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Ze Box'내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CMA-CGM 벤처는 NYSHEX 화물운송계약 사업에 투자했으며, Le Carburateur사의 운송 및 물류분야와 관련된 5가지 사업에도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 또한 중국의 알리바바와 같은 e-business 기업과도 파트너십 계약을 유지하면서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물류기업과 협력하고 있음
  - 'Ze Box'는 2018년 6월 첫 오픈 예정으로 초기에는 12개의 start-up 기업을 수용할 예정임
- 향후 CMA-CGM은 'Ze Box' 내에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고 기업가정신 함양과 인재육성, 인력 네트워킹의 장을 만들어갈 예정이며 향후 신생 기업과 공동으로 기술개발 및 연구협력을 통해 글로벌 혁신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 밝힘
  - CMA-CGM 최고 경영자인 Rodolphe Saade씨는 향후 'Ze Box'센터를 통해 자사 최고의 디지털전략 및 기술개발, 기업혁신과 기술혁신, 최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힘

## 디지털 기술혁신을 통한 CMA-CGM의 미래상



출처: <https://lloydlist.maritimeintelligence.informa.com/LL1121058/CMA-CGM-launches-box-tech-incubator>

참고자료 : <https://www.porttechnology.org>, 2018.02.01.

이주원 연구원

051-797-4667, peterlee@kmi.re.kr

## Kuehne+Nagel, 해운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 출시

- 스위스계 글로벌 포워더인 퀴네나겔(Kuehne+Nagel)은 최대 해상운송서비스 네트워크 제공을 위해 'Sea Explorer'라는 디지털 플랫폼을 출시함
  - 'Sea Explorer'는 주요 통신 사업자와 높은 수준의 통합 및 파트너십(Partnership)을 기반으로 함
  - 또한 퀴네나겔의 고객들로 하여금 글로벌 해상운송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개요를 제공할 Blue Anchor Network에 대한 접근을 수월하게 함
  - Blue Anchor Network는 3,000여척 이상의 선박과 750개 이상의 주간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통해 전세계 컨테이너 운송에 대한 모든 거래에 있어 최대한의 유연성을 제공함
- Sea Explorer는 퀴네나겔의 뛰어난 견적, 예약(부킹) 및 트랙 기능을 확장시킴
  - 오늘날 전체 선박의 약 25%가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고 있으며 리드 타임의 불안정성은 고객이 재고 수준을 적절히 관리하는데 있어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임
  - 이 플랫폼은 다양한 운영 데이터에서 파생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기반으로 함
  - 강력한 업계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구축된 알고리즘은 퀴네나겔의 데이터부문 자회사인 LogIndex에서 제공하는 빅데이터 및 예측분석과 결합됨
- 최근 퀴네나겔은 물류기술 및 공급망의 첨단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올해 1월, 퀴네나겔은 싱가포르의 국부펀드인 테마섹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첨단 물류기술 및 공급망을 개발할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기로 함
  -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전통적인 물류분야의 사업모델을 변화시켜 고객가치실현을 강화할 계획임
- 퀴네나겔의 국제부 이사회 임원인 Seafreight Otto Schacht씨는 "물류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데이터 투명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Sea Explorer는 세계 최대의 해상운송 서비스 포트폴리오에 접근할 수 있다"고 기대함

■ 참고자료 : Seatrade Maritime News, Kuehne + Nagel launches digital platform for seafreight service offerings, 2018.3.2.  
(<http://www.seatrade-maritime.com/news/europe/kuehne-nagel-launches-digital-platform-for-seafreight-service-offerings.html>)

김영훈 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 PSA, 인도 자와할라 네루 신규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 착수

- PSA는 인도 서해안에 위치한 자와할라 네루항 제4기 컨테이너 터미널의 1단계 공사를 완료했으며, 수일 내에 본격적으로 터미널 운영을 개시할 예정임
  - 새롭게 운영될 예정인 컨테이너터미널은 인도 서부 해안지역에 위치한 나비뭄바이에 위치해 있으며, 공식 명칭은 BMCT(Bharet Mumbai Container Terminal)임
  - 신규 컨테이너터미널의 공사는 DBFOT(Design, Built, Fund, Operation, Transfer) 방식으로 추진 되었으며, 총 공사비는 약 12억 달러로 추정됨
  - 터미널의 운영 및 관리는 PSA의 자회사인 BMCTPL(Bharat Mumbai Container Terminals Private Ltd.)사가 맡을 예정이며 터미널 운영기간은 약 30년임
- 신규 컨테이너터미널은 1단계에서 연간 240만 TEU, 2단계가 완공되는 2022년에는 연간 약 1,000만 TEU의 화물 처리 능력을 보유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1Km가 넘는 안벽에 22기의 컨테이너 크레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3대의 컨테이너선이 동시에 하역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야드를 확보하고 있음

자와할라 네루 신규 컨테이너터미널 전경



자료 : [www.porttechnology.org](http://www.porttechnology.org)

■ 참고자료 : [www.ocean.logistics-business-review.com](http://www.ocean.logistics-business-review.com), 2018.3.5.

김동환 연구원

051-797-4913, [kdong@kmi.re.kr](mailto:kdong@kmi.re.kr)

## 푸틴 대통령, 국정 연설에서 러시아 내륙물류 및 항만개발 언급

- 지난 3월 1일 푸틴 대통령은 국정 연설을 통해 현재 러시아 내륙물류 및 항만개발 현황과 추후 계획을 발표함
- 국내 지역 도시 및 마을의 발전, 비즈니스 활성화, 그리고 국가의 결합을 위해서는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소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으며, 특히 크림지역 및 러시아 흑해지역의 발전을 위해 올해는 크림다리가, 내년에는 철도가 완공될 예정이라고 밝힘
  - 또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방 정부에게 노후화된 지방도로에 새로운 IT 기술과 솔루션을 접목시키는 것과 같은 현대화 사업이 필요한 시점임에 따라 각별한 관심을 요구함
- 2012년~2017년 간 6조 7천억 루블이었던 러시아 국내 도로건설 사업을 위한 예산을 향후 6년 동안 약 두 배인 11조 루블로 늘릴 것이라고 강조함
  - MOU에 따라 러시아철도청과 카자흐스탄철도청은 고속 및 초고속 여객용, 중국-유럽 환적화물, 전자상거래를 통한 상품운송을 포함해 모든 운송과 관련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함
- 유라시아물류운송노선에 따라 도로 건설은 이미 진행 중이며, 유라시아 노선을 개발하기 위해 중국 및 카자흐스탄과 적극적인 협력을 도모하고 있으며, 올해 가속화할 전망이라고 밝힘
  - 향후 6년 동안 BAM(바이칼-아무르 철도) 및 TSR을 통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러시아 서부 국경까지 7일 만에 컨테이너를 운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물동량은 약 4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함
- 북극항로는 극동지역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열쇠이며,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운송노선으로 만드는 것이 러시아의 목표임에 따라 소비에트 연방 시기 때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극동지역 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극동지역 인구 증가를 도모하기 위해 사회경제발전센터를 설립할 계획임
  - 북극지역은 러시아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임에 따라 과학, 교통, 항로, 안보와 관련된 인프라 강화를 위해 투자하고 있으며, 현대적인 핵 쇄빙선을 건조 중임
  - 러시아가 글로벌 물류운송허브 국가임과 동시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정보 저장 및 처리를 할 수 있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무인기술 및 인공지능 기술과 기존 기술을 결합해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물류환경 흐름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 참고자료 : <http://seanews.ru>, 2018.3.6.

김엄지 연구원

051-797-4776, umjikim@kmi.re.kr